

# 불교적 실존주의로 접근해야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2)

붓다 진리관의 철학적 기초  
니까야·아함의 열마나 붓다의 육성을 담고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모든 불교 문헌들 가운데 붓다의 육성과 체취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니까야·아함을 관통하는 '진리에 대한 관점'의 철학적 기초로서는 두 가지가 주목된다. 경험주의와 실존 실용주의가 그것이다. 붓다의 경험주의를 서양철학 계보에서의 경험주의로 치환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공유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니까야·아함에서 일관되게 목격되는 붓다의 경험주의적 태도는 '경험·체험을 진리의 태도와 기준으로 삼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붓다의 진리관은 '탐욕·분노·무지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가장 잘 풀어주는 해법이 진리'라고 하는 관점에 의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진리치의 기준으로 삼는 프래그머티즘의 태도와 상통한다. 다만 붓다가 풀고자 하는 문제유형이 탐욕·분노·무지에 연루된 실존 오염의 문제라는 점에서, 현대 프래그머티즘과는 구별하여 '실존 실용주의'라고 불러본다.

실존의 탐·진·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주는 문제해결 능력을 진리의 자격조건으로 보는 시선이 실존 실용주의이다. 따라서 경험주의와 실존 실용주의는 탐·진·치를 매개로 진리의 범주와 능력을 설정하는 두 시선이며,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된다. 상호 연루된 경험주의와 실존 실용주의의 태도에 의해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붓다의 시선은, 마치마니까야의 <말뚝기야뻬따>에 대한 작은 경, 상웃따니까야의 <심사빠

기는 것'과 '탐·진·치 없음에서 생기는 것'의 두 가지일 뿐이며, 이것만을 진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라한이나 여래의 죽은 후의 상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붓다의 경지에 선정의 경지에 대한 이런 저런 사견 해아림, 오지 않은 업의 과보, 세상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변에 몰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직접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주의 시선의 연장선에 있다.

붓다의 경험주의는 경험적 근거를 지니지 않은 판단이나 주장에 대해 원천적 불신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경험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거나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믿음·선호·구전·이론·사변에 의지하지 말며, 경험범주인 육내외처에서 탐·진·치를 기준으로 문제에 대처할 것을 권한다. 니칸타의 고행주의가 느낌의 원인을 전생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붓다의 경험주의는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층은, 진리 주장은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층은, 진리 주장은 '온전한 경험'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 혹은 경험 가능한 것들은 '온전한 것과 왜곡된 것'의 두 유형이 있으며, 진리와 하나 됨은 '온전한 경험'으로써 구현된다는 것이, 붓다 경험주의의 궁극적 지향이다.

니까야·아함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실제 그대로(如實)'라는 용어는 붓다 경험주의의 궁극을 지칭하는 전형적 표현으로 보인다. '실제대로 안다'는 것은 '온전한 경험' 지평이 열린 것이며, 이 경험지평에서 해탈의 명지(明知)가 밝아진다. 사성제 및 사성제의 다양한 변주들은 결국, 왜곡되



사찰에서 기도 중인 불자들. 탐·진·치 삼독심은 부처님이 철저하게 경험적 근거에 기인한다. 실존의 불교적 문제이다.

따라서 붓다의 실존 실용주의는 '탐욕·분노·무지를 축으로 삼는 삶의 실존적 오염과 왜곡을 치유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험 가능한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해 진실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 탐구의 범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붓다의 경험주의이다. 아울러 탐욕·분노·무지를 조건으로 수립된 삶의 실존상황에 적용하여 탐욕·분노·무지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만 진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붓다의 실존 실용주의이다.

붓다의 경험주의와 실존 실용주의는 탐·진·치를 매개로 결합되어 있다. 탐·진·치는 경험과 체험의 대상이다. 정신·물리적 몸(오온)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지금 여기'의 현상이며, 그 현상들은 전적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탐·진·치는, 경험적 실재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도 있는 개념이 아닐 뿐더러, 추론으로 성립하는 논리적 사대도 아니다. 몸에서 직접 접촉하고 알게 되는 경험적 사태가 탐·진·치이다. 그런 점에서 탐·진·치는 '실존의 불교적 문제'이다.

그리고 실존 실용주의는, 탐·진·치를 발생조건으로 하는 경험적 실존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진리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술 경), 앙국따라니까야의 <갈라마경> 등에서 그 전형이 목격된다. 특히 <갈라마경>은 '탐·진·치의 문제/경험주의/실존 실용주의'를 결합시켜 진리판별의 기준문제를 다루고 있다.

### 경험주의적 진리관과 탐·진·치

세계의 발생과 소멸 및 범주를 오온(五蘊)이나 육근(六根)을 조건으로 하는 18개의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은 명백히 경험주의의 세계관적 기초이다. 붓다는 오직 감각기관(육내처)과 대상(육외처), 그리고 이 둘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경험세계(오온/18계)의 탐·진·치 문제만을, '풀 수 있는·풀어야 하는' 문제로 선택한다. 탐·진·치가 연루된 경험과 세계지평을, 탐·진·치가 없는 경험과 세계지평으로 바꾸는 것만을, 구도의 과제로 선정한다. 인간이 경험 가능한 행위(업)는 '탐·진·치에서 생

의 업으로만 둘러버리는 것을 비판하는 붓다의 논법도 같은 맥락이다.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논거 위에 수립한 니칸타의 고행주의는, 붓다의 경험주의로 볼 때, 무의미하고 독단적이며 해롭다. 붓다가 자신이 설하는 진리(법)의 특성을 요약하고 있는 정형구는 이와 같은 경험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탐·진·치에서 풀려남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이고, '와서 보라는 것' (직접 경험으로 검증되는 것)이며, '향상으로 인도하고' (경험으로 확인 가능한 향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 (각자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법의 특징(스스로 보아 알/시간이 걸리지 않음/와서 봄/향상으로 인도/각자 알아야 함)은 탐·진·치의 증장과 소멸에 따른 고통과 행복 경험의 변화를 통해 직접 확인·

지 않은 존재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는 '온전한 경험'의 가능 조건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별방상 혹은 희론(戲論, 개념환각의 확산)은 존재의 온전한 면모를 왜곡시키는 인식적 장애이다. 그리고 이 인식장애는 모든 경험의 처소인 '지금 여기의 몸 범주' (오온·육근·12처·18계)에서 발생한다. 무지의 분별방상·희론에 의해 발생한 '왜곡된 세계경험'도 '지금 여기의 몸 범주'의 현상이고, 사성제 수행 등으로 생겨난 '온전한 세계경험' 역시 '지금 여기의 몸 범주'에서의 일이다. 마치마니까야의 <콜과자의 경>은 탐·진·치의 왜곡된 세계경험이 오온·육근의 지각경험에서 '느낌-지각-사유-희론-희론에 오염된 관념'이라는 연거푸 연쇄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 균형 있게 조화롭게

초등학생 정도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나무꾼과 노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아겠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험레벌떡 뛰어오더니 숨겨달라고 애원했다. 나무꾼은 그 노루를 나뭇짐 속에 숨겨 주었다. 곧이어 사냥꾼이 뛰어왔다. 노루를 보지 못했느냐는 사냥꾼의 물음에 나무꾼은 대답한다.

"방금 저기로 뛰어가던데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킨 방향으로 뛰어 갔고 나뭇짐 속에 숨어 있던 노루는 나무꾼의 거짓말에 의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많다. 그럴 경우 어린 날의 기억으로는 나무꾼이 착한 일을 하긴 하였는데,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데서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았나 싶다. 나는 지금 불교의 최고의 이상향인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 길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우선 <상승부경전>과 <잡아함경>에 있는 말씀이다.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한 사람인 사리불과 그의 벗인 외도(外道)와의 나는 대

있지 않은가? 노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듯한 논리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사실은 여덟 개의 바른길 중 정어(正語) 부분만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정업(正業)과 정명(正命)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바른 행위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생활인지 그에 대한 물음에도 답변이 쉽지 않다.

물론 석가가 깨달음을 성취한 뒤 최초로 진리를 설한 사제설법(四諦設法)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는데 있어 쾌락과 고행(苦行) 등의 두 개의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에 입각해서 살행에 옮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들 부처님께서 펼쳐 보인 실천의 방법론에 무딘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팔정도를 설명할 때 바른 관찰(正見), 바른 생각(正思),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명상(正念), 바른 지혜(正定)로 글자적인 해석에

## 팔정도 실천에는 중도적 자세 중요 무턱대고 '바른 것'에만 집착말아야

화 내용이다. "벗이여,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이르는 길이 있는가?"

"그렇다. 열반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렇다면 벗이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달라."

"성스러운 여덟 개의 길이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자 거기에 이르는 길이다. 즉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 그것이다. 벗이여, 이 방법은 뛰어나며 이 길은 누구라도 힘써 불만한 가지 있는 길이다."

여기서도 어린 날의 혼란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다. 정어(正語)부분에서다. 바른말은 거짓말의 반대말인데 나무꾼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바른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 성급하게 뛰어 들 수도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바른 말로 볼 수밖에 없다. 불교에는 개차법(開遮法)이 있다.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열 때는 열고 닫을 때는 닫으라는 가르침이


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팔정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좌우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간을 취하는 중도적인 자세이다. 나는 그것을 균형과 조화라고 표현하고 싶다.

팔정도의 실천은 그냥 무턱대고 '바르게'만을 고집하거나 '바른 것'에만 집착하지 말 일이다.

여덟 개의 성스러운 길이 여덟 개의 족쇄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이며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여덟 개의 생활덕목이, '바르게'에 부딪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혼란으로 인한 실천 불가능으로까지 번져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경쟁 사회이다. 생존하기 위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바르게'만이 살아갈 수 없음도 인정해 줘야 한다.

마치 나무꾼이 바른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노루를 숨겨줘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생활 주변에는 널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덟 가지의 길을 설명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균형 있게, 조화롭게'를 먼저 생각한다면 어렵지도, 어려울 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길 이 되는 것이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 우리불교 曹溪宗

입·중·안내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접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종정 홍산 현불 중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중도님을 모집합니다.

